

<아산나눔재단 MARU180 개관 3주년 기념 축사>

2017. 4. 27.

마루180에 입주하신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 임직원 여러분, 재단의 정진홍 초대 이사장님과 이경숙 이사장님, 이사님들, 팀장과 직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마루180의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저희 아버님 서거 10주기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들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고 가족들도 도와주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서 강원도 산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큰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일제 시대,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동해안의 시골 마을 통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당에서 3년, 근대적 교육인 초등학교에서 3년, 모두 6년 공부하신 게 교육의 전부입니다. 아버님은

서당에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배우신 것에 대해 항상 자랑하시고 가족과 인간관계 같은 동양철학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희들을 보시고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일을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핀잔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현대’라는 큰 기업을 일구기 전에는 건설현장 노동자, 쌀가게 직원과 같은 다양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시작할 때는 작은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성공의 비결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어려워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있었고 운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그 못지않게 아버님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서 1940년 아현동에서 작은 자동차 수리공장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현대자동차의 모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전자부품이 많지 않아서 누가 빨리 수리를 해주는가 하는 것이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 3천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불이나자 아버님은 다시 그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이대로 사업이 망하면 지난번에 빌린 돈도 못 갚게 될 테니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간청하셨답니다.

그 분이 잠자코 듣더니“그동안 한 번도 빌려준 돈을 떼인 적이 없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 리가 없다. 돈을 못 받으면 내 기록에도 흠이 된다. 다시 빌려줄 테니 이번에는 잘 해서 꼭 갚으라”고 하면서 3천5백원을 또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셨으니 어찌 보면 그 사채업자가 엔젤투자자의 효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은 오랜 기간 건설업을 하셨는데 허허벌판에서 집을 짓고 일을 하다가 살 만하면 일이 끝나 새로운 현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건설업이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조업에 관심을 갖고 조선소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영어로 조선업을 ship building이라고 하고, 조선공학을 naval architecture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업은 일종의 건설업입니다. 아버님은 철구조물에 스팀 터빈을 넣으면 배가 되는 것이지 배가 별거냐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조선소를 지을 자금을 구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본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은행들이 3만 톤 이하의 배를 만들면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30만 톤 이상의 배를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영국으로 가셨습니다.

영국 버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가셨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은행 총재가 아버님에게 “당신의 대학 전공은 경영학입니까, 공학입니까?”라고 묻더랍니다.

대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신 아버님은 대답 대신에 “당신네 은행에 낸 사업계획서를 보았습니까?”라고 묻고 “그 사업계획서를 옥스퍼드 대학에 보냈더니 박사학위를 주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총재가 웃으면서 “옥스포드 대학 박사도 그런 사업계획서는 만들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2천만 달러를 빌려주었는데 당시로는 큰돈이었습니다.

훌륭한 기업가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도움, 시장을 형성하는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루180이 3년간 걸어온 길을 보니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루180을 졸업한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서 후배들을 위해 창업생태계라는 토양에 씨를 뿌리는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큰 딸 남이가 키는 큰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